

강진군, 바다낚시 어선 첫 유치...“해양레저관광시대 개막”

마량항서 7척 출항식...郡 “어선 1대 경제효과 연 7억” 종사자 유입 등 인구 증대 기대도...5년 내 100척 목표

강진군이 남해안 해양레저 거점도시 조성 전략 중 하나로 꾸준히 추진해온 바다낚시 어선 유치가 첫 결실을 맺고 마량항에서 출항식을 가졌다.

26일 강진군에 따르면 출항식은 지난 22일 강진원 군수, 군의장, 군의원, 전남도의원, 마량면 기관·사회단체장, 낚시어선 관계자, 강진산단 입주기업인 SDN 관계자, 군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출항식은 타지역 바다낚시 어선 7척을 유치, 탑재해 있는 군의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발점으로 삼아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바다낚시 어선 유치는 강진군의 민선 8기 60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현재 수산, 양식 등 1차 산업 위주의 어촌 경제를 3차 산업인 해양레저관광으로 전환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출

발했다.

그간 마량항에서 일시적으로 바다낚시 어선이 운영된 적은 있지만 장기·정기적인 운행이 드물어 바다낚시 어선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타지역에서 수년, 길게는 수십년간 머물렀던 어선들이 생활 기반과 선적항이주로 인한 낚시객 모집, 새로운 낚시 포인트 개발 등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선뜻 이전할 의지를 보이지 않아 군은 삼고초려의 정성을 들였다.

강진원 군수는 바다낚시 어선 이전을 위해 지난해 녹동항을 비롯해 완도·회진·서평·군산항 등 낚시꾼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항구를 방문하고 낚시어선협회 임원, 선장 등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을 거듭했다.

이처럼 유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민, 지역사회, 공직자 등 모두가 헌



강진군이 남해안 해양레저 거점도시 조성전략으로 바다낚시 어선을 유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마량항에서 바다낚시 어선 출항식 행사를 개최했다.

〈강진군 제공〉

신적으로 노력해 바다낚시 어선 유치가 성공했다.

또 온화한 기후로 일년 내내 낚시가 가능하며 대도시와 접근성이 쉬운 마량항의 이점과 바다낚시 어선 전용 부잔교 설치, 어선 사무실 설치 등 타지역과 차별되는 어선 친화 정책으로 선장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녹동항에서 이전한 강진군 성진 출신의 최남수 선장은 “마량항으로 이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하지만 선구자 역할을 해 고향 강진이

해양레저관광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는 신념으로 이전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은 바다낚시 어선 유치로 인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낚시 어선 종사자 인구 유입으로 인한 인구 증대와 낚시어선 당일치기나 1박2일 프로그램 체험을 통한 마량항 관광객 증가로 편의점, 식당, 낚시판매점 등 주변 지역 상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지역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전

망된다.

군에서는 바다낚시 어선 1대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연 7억원, 관광객은 3천여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5년 내에 100척의 낚시어선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다.

관내 낚시어선 수리·구입 등의 지원책을 펼쳐 관외 낚시 어선의 이전과 동시에 관내 낚시 어선 활성화에도 힘을 예정이다.

강진원 군수는 “바다낚시 어선 유치

는 지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강진군의 강진만 해양관광거점 전략의 시발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바다낚시 어선은 새로운 강진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며 500만 관광객 유치를 견인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다낚시 어선 7대는 지난 16일 마량항 이전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낚시객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군의 해양레저 도시 도약에 기대를 높이고 있다. /강진=정영록기자

나주시, 영산강 명품 300리 자전거길 정비 ‘순항’

행안부 ‘국도 중주 정비사업’ 선정...특교세 4억 확보 하반기 교량 철거 따라 단절된 320m 연결데크 신설

나주시가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힘입어 하천 교량 철거로 단절됐던 영산강(문평천) 자전거길 구간을 연결한다.

26일 나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2023년 국도 중주 자전거길 정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자전거길 조성을 위해 국도 중주 자전거길 신규 발굴·단절구간 연결, 기존 노선 도로 정비 등을 추진한다.

시는 사업 선정을 통해 특별교부세 4억 원 확보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면 가흥리 문평천 영산강 합류지점 자전거길 단절구간에 총길이 320m·폭 3m 쉼터데크 자전거길(연결데크)을 신설할 계획이다. (사진) 해당 자전거길은 2020년부터 수해

방을 위해 추진 중인 문평천 재해복구공사로 하천 횡단 교량(회룡교)이 철거되면서 완전 단절된 상태다.

또 교량 철거로 인해 기존 노선이 하천 농로를 우회, 곡선 교량 차도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변경되면서 자전거 이용자 불편과 차량 간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문평천을 가로지르는 자전거길이 연결되면 이용자 안전·편의성 향상은 물론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산강 명품 300리 자전거길’ 조성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가 지난해 11월 영산강 300리 자전거길 조성사업 용역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나주시도 올해 5월 국가하천(영산강·지석천) 자전거길 공사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실시계획 이후 오는 2025년까지 국비 20억원을 투입해 ‘산포배수장-지석천변길’, ‘덕천들-영산강변길’ 단절구간 연결과 노후 자전거길인 ‘나주대교-영산강저류지’ 구간 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영산강 만봉천 자전거길 사업 구간인 오는 7월 동강느리저전망대 자전거길, 내년 12월 운곡동 자전거길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항 중이다.

윤병태 시장은 “국도 중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을 통해 부분적으로 단절된 자전거길 구간을 잇고 원도심과 혁신 도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명품 자전거길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영산강 명품 300리 자전거길 조성을 통한 대회 유치와 자전거 관광객 유입 등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기자

진도군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사업’ 선정

문화재청 공모...‘치기형 민속놀이’ 사업비 2억 확보

진도군은 “최근 2023년 문화재청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사업’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비지정 문화유산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문화재청이 공모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연간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군에서는 ‘진도지역 치기형 민속놀이’가 선정돼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고 지역 대표 문화자원으로서의 육성을 계

획하고 있다.

치기형 민속놀이는 주로 손과 도구를 사용해 부딪치며 건강한 승부욕을 길러냄과 동시에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놀이로 교육 복지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무형유산이다.

군은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 단절 위기에 놓인 전통놀이와 문화를 재해석하고 집합화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무형문화유산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모사업을 기대하고 있다. /진도=박세권기자



해남군 우수영-신안군 장산·신의도 뱃길 열린다

카페리 여객선 운항...정원 314명·차량 37대 선정

해남군 우수영에서 신안군 장산·신의도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카페리 여객선이 취항한다.

26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해남군청 상황실에서 명현관 군수와 박금희 (유)신진해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우수영-장산·신의도 항로에 449t급 카페리 여객선 드림 아일랜드호 운항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드림 아일랜드호는 여객정원 314명, 차량 37대를 선적할 수 있다. 이날부터 선이 운항 중으로, 업무협약을 통해 해남군은 우수영항 터미널에 매표소 등을 설치하고 운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우수영-장산·신의도 간 여객선 취항은 우수영항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로, 우수영 오일장과 관광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수영항이 서남부의 중심항이 될 수 있도록 여객선사와 긴밀히 협조해 차질없는 운항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장산도와 신의도, 하의도는 전국 최

대 천일염 생산지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 등이 위치한 연중 관광객들이 붐비는 지역으로, 우수영항을 통한 소금 등 수산물 물동량 증가와 관광객 유입의 효과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해남 우수영항은 인근 시군에서 접근이 원활하고, 무료 주차 공간이 넓어 차량 이용에 부담이 없으며 서울·목포·순천·부산 등 타지역으로 진출하기가 편리한 교통의 요지다.

/해남=박필용기자

‘큰바다사자’ 100년만에 가져다서 관찰

1920년대 日 남획 후 사라진 뒤 해양생태계보호구역서 확인

신안군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는 “최근 국도 최서남단 신안 가져도에서 멸종위기Ⅱ급인 ‘큰바다사자’(사진)가 관찰됐다”고 26일 밝혔다.

큰바다사자는 시베리아 연안, 캄차카 반도, 베링해 등 북부 태평양 바다에서 서식하는 바다사자의 일종으로 수컷의 무게는 1t이 넘으며 110~130㎏까지

잠수하고 수중에서는 시속 25~30km로 헤엄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명태, 광치 등 어류와 새우, 조개, 소라 등이 주 먹이원으로 현재 국내에는 큰바다사자의 집단 서식지는 없지만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주변 해역, 제주도 등지에서 아주 드물게 관찰되며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신안군 가져도에서 확인된 큰바다사자는 영해계집인 녹색 깃바위에 서 휴식하고 있는 모습이 어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주민에 의해 1개체가 최초

목격됐다.

큰바다사자는 과거 1920년대 신안 가져도 부속섬 구굴도, 개린도에서 120여개체 서식했으나 일제 강점기 일본에 의해 남획돼 이후 사라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 관찰은 무려 100여년 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국도 최서남단 가져도 해역은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어족 자원이 풍부한 청정지역”이라며 “큰바다사자의 서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양홍기자

무안군,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모집

상반기 11명 증원...공공근로 89명 등 106명

무안군은 26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하반기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사진) 참여자를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은 하반기에 상반기 대비 11명을 증원에 공공근로사업 89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7명 등 총 106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 환경정화 등 56개 사업에, 지

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향토 전통기술 전수사업, 여성원어민강사 이동학습지원 등 8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오는 8~11월 시행된다.

참여 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75세 미만이고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단, 사업 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타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 등은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모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읍·면사무소와 미래성장과 일자리팀(061-450-4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삼 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취약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과 민간 일자리 진입의 디딤돌로 민생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무안=김성호기자